

중국 SF의 포스트휴머니즘적 문학 상상

- 류츠신(劉慈欣) 『삼체(三體)』 를 중심으로

손주연*

목 차

1. 들어가며
2. 『삼체』 삼부작의 포스트휴머니즘적 요소들
3. 외계 문명의 존재로 재고하는 인간 문명의 윤리성
4. 기술 중심주의 문명에서의 인간성 문제
5. 나오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국의 대표 SF 소설 류츠신(劉慈欣)의 『삼체(三體)』 삼부작을 포스트휴머니즘의 시각으로 분석한 것이다. 특히 류츠신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구현된 『삼체』 삼부작의 SF 세계관에 묘사되어있는 기술·인간·외계 및 인간 문명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인간과 인간 문명이란 무엇인가'로 귀결되는 철학적·문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삼체』 삼부작에서 외계 문명과 조우는 인간 문명의 외연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인간 문명은 '인간 대 인간'의 세계관에서 '인간 대 미지의 외계 생명체'로 시야를 확대한다. 이러한 외계 문명과 조우는 기술이 매개되었을 때 발생하는 윤리성 문제와 인간성 개념에 대한 의문을 대두시킨다. 『삼체』 삼부작에서 제시된 발전된 기술은 많은 부분 윤리성 문제와 결부된다. 멘탈 스탬프, 극한의 상황 하에서의 식인(食人), 외계와 인간 문명의 공멸 전략 등은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윤리성의 절대적 기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이와 함께 인간의 정신으로 상징

* 목포대학교 중국언어와문화학과 조교수

되는 뇌와 신체의 분리, 인간의 모습으로 체현(體現)된 외계 생명의 모습 등으로 제시 되는 기술의 발전은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개념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다.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게 만드는 요소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삼체』 삼부작에서 묘사하고 있는 미래 세계는 이미 기술을 중시하는 시대에 접 어든 인간 문명을 돌아보게 해준다. 이 과정 속에서 독자들은 기술의 발전이 담보하 는 문명의 진보와 미래에 대한 희망, 인간 존재의 의미가 가지는 철학적 의미를 재고 하게 되는 것이다.

키워드: 류츠신(劉慈欣), 삼체(三體), 삼체문제(三體問題), 중국 SF 소설, 포스트휴머 니즘, 포스트휴먼

1. 들어가며

류츠신(劉慈欣)은 왕진강(王晉康), 한쑹(韓松), 허시(何夕) 와 함께 중국 SF 소설의 사대천왕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인기가 많은 SF 작가다. 그중에서도 『삼체(三體)』 삼부작은 류츠신의 대표작으로 『삼체 제1부: 삼체문제』는 2007년에 제18회 중국 SF문학 은하상(銀河獎)을, 『삼체 제3부: 사신의 영생』은 2010년 제22회 은하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제3부는 중국 내 출판 한 달 만에 판매량이 10만권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¹⁾ 이후 2015년 『삼 체』가 SF계의 노벨상이라 일컬어지는 휴고상(Hugo Award) 최우수 장편소 설상을 수상하면서 류츠신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2019년 류츠 신의 중편소설 『유랑지구(流浪地球)』가 영화화되고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 번 류츠신을 중심으로 한 SF 열풍이 일어났다. 2020년에는 『삼체 제1부: 삼체문제』로, 2021년에는 『삼체 제2부: 암흑의 숲』으로 일 본의 SF 문학상인 성운상(星雲賞)도 수상하였다.²⁾

1) 嚴鋒, <創世與滅寂—劉慈欣的宇宙詩學>, 南方文壇, 2011年, 第73頁.

2) “劉慈欣憑《三體2：黑暗森林》再獲日本星雲獎”, 『人民資訊』, 2021年7月22日,

『삼체』 삼부작이 세계 SF 문학계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다양하다. 이는 “아무리 과학기술 기반에서 출발하는 문학이라 하더라도 자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중국다운 특색을 드러내려 하는 성향”³⁾의 90년대 중국 SF소설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보다도 『삼체』 삼부작은 SF소설 특유의 방대한 우주적 서사 속에서 외계 문명을 통해 인간 문명을 또 다른 측면에서 인식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다. 『삼체』 삼부작에서 인간 문명과 외계 문명의 조우는 인간 문명의 외연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인간 문명은 ‘인간 대 인간’의 세계관에서 ‘인간 대 미지의 외계 생명체’로 시야를 확대한다. 이러한 외계 문명과 조우는 기술이 매개되었을 때 발생하는 윤리성 문제와 인간성 개념에 대한 의문을 대두시킨다. SF소설답게, 『삼체』 삼부작에는 상상력이 가미된 다양한 신기술들이 등장한다. 여기서 제시된 발전된 기술은 많은 부분 윤리성 문제와 결부된다. 멘털 스탬프, 극한의 상황 하에서의 식인(食人), 외계 문명을 소멸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외계와 인간 문명의 공멸 등은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윤리성의 절대적 기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이 밖에도 인간의 정신으로 상징되는 뇌와 신체의 분리, 인간의 모습으로 체현(體現)된 외계 생명의 모습 등 발전된 기술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게 만드는 요소란 무엇인가’의 질문을 대두시킨다.

그간 SF소설은 대중적 장르문학으로 일반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감과 동시에, ‘공상 과학’의 세상 속에서 인간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때문에 SF소설은 ‘과학’과 ‘공상’의 영역을 넘나들며, 때로는 인간의 지나간 과오에 대해, 때로는 인간이 앞으로 마주해야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화두를 끊임없이 던져왔다. 류즈신의 『삼체』 삼부작은 이러한 맥락 속

<https://baijiahao.baidu.com/s?id=1705990857275159502&wfr=spider&for=pc>

3) 고장원, 『중국과 일본에서 SF소설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 중국과 일본의 과학소설 역사』, 부천: 부크크, 2017년, 81쪽.

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근미래’에 직시해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과 존엄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삼체』 삼부작에서 묘사하고 있는 미래 세계는 독자들로 하여금 기술을 중시하는 시대에 접어든 인간 문명을 반성하게 해주며, 기술의 발전이 담보하는 문명의 진보와 미래에 대한 희망, 인간 존재의 의미가 가지는 철학적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포스트휴머니즘적 시각은 『삼체』 삼부작의 문학적·철학적 분석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은 포스트휴머니즘적 시각을 통해 류츠신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구현된 『삼체』 삼부작의 SF 세계관에 묘사되어 있는 기술·인간·외계 및 인간 문명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인간과 인간 문명이란 무엇인가’로 귀결되는 문학적·철학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삼체』 삼부작의 포스트휴머니즘적 요소들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이 점점 가속화하는 가운데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과학적 상상력과 현실 기술의 경계선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1968년, 필립 K. 딕(Philip K. Dick)의 SF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⁴⁾ 발간 당시만 하더라도 공상과학과 현실기술의 격차는 명확하였다. 저자가 허구 속의 21세기 샌프란시스코를 그려내며 ‘인간의 피조물과 인간성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포스트휴머니즘의 태동을 알리던 그 시기⁵⁾에, 현실 세상에서는 아직 개인용 컴퓨터조차 보편화되지 못한

4) 필립 K. 딕 지음, 박중서 옮김,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서울: 폴라북스, 2013년.

5) Galvan, Jill. “Entering the Posthuman Collective in Philip K. Dicks’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Science Fiction Studies*, 24(3). 1997, p. 413-429.

상황이었다. 그러나 알파고를 필두로 한 각종 딥러닝(deep-learning) 기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한때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영역조차 넘보고 있다.⁶⁾ 딕이 소설에서 묘사했던 홀로그램 기술도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등 다양한 형태로 발아하고 있다. 즉, 이전에는 포스트휴머니즘과 인간성에 대한 고찰이 SF소설과 상상력이라는 울타리 안의 전유물이었으나 이러한 울타리가 점차 허물어져 현실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류츠신은 2016년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 기고한 “The Robot Revolution Will Be the Quietest One”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명을 예로 들며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지라도 로봇 혁명이 시작되었음을 경고하는 것은 SF 작가로서의 의무”라 말한다. 류츠신은 이러한 로봇혁명을 눈앞에 둔 인류에게 주어진 미래는 유토피아적인 시나리오와 디스토피아적인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디스토피아적인 시나리오는 인류가 AI에게 모든 직업을 빼앗겨 인류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고, 유토피아적인 시나리오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류츠신은 인류에게 어떠한 미래가 주어질지는 불분명하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거의 직업 형태가 ‘야만적’(barbaric)으로 느껴질 만큼 큰 변화가 붙어 닥칠 것이라 강조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간’ 형태의 변화다.

AI 시대에는 모든 생각이 기계들에 의해 행해진다. 왜냐하면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자율성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한 걸음씩

6) 체스의 경우 이미 1997년 인공지능이 인간 챔피언에게 승리하였으나, 바둑은 체스와 달리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것은 20~30년 내에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는 2016년 첫 데뷔 이후 여러 프로 바둑 기사를 상대로 연승을 거듭했으며, 2016년 3월 13일 이세돌 9단이 거둔 1승이 알파고를 상대로 한 인간의 유일한 승리로 기록되고 있다.

“[IF] 첫 네 수만 167억가지... '피'를 부린 알파고” 『조선비즈』, 2016년 4월 2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1/2016040101422.html

우리는 스스로를 AI의 유순하도록 멋지게 길들여진 반려동물로 변모시켰다.⁷⁾

다시 말하면, 류츠신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자율성’을 박탈당한 인간은 AI의 ‘반려동물’에 불과하며, 이것이 로봇 혁명을 맞이하는 인류 문명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류츠신은 이러한 로봇 혁명을 긍정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로봇 혁명은 불가피한 변화이며, 이로 인해 이 세계에서 인간 존재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바뀔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이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개별 인간에 대한 신화 역시 무너”졌다는 포스트휴머니즘의 논의를 연상시킨다. “신체와 정신의 경계가 해체·재구축되고 ‘몸’의 성립 조건이 달라지면서, 기계와 인간 사이의 경계가 해체된 풍경”은 이제 더 이상 낫설지 않게 되었다.⁸⁾ 이러한 디지털 문명의 도래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류츠신의 현대 인류 문명과 인간성에 대한 고찰은 SF세계관이라는 색다른 공간 속에서 전개되며, 지구 문명과 외계 문명의 접촉을 주 소재로 삼고 있다. 이는 SF 소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설정⁹⁾이나, 『삼체』 삼부작

7) Liu Cixin, “The Robot Revolution Will Be the Quietest One”, The New York Times, Dec. 7, 2016.

<https://www.nytimes.com/2016/12/07/opinion/the-robot-revolution-will-be-the-quietest-one.html>

8) 안승범, 『SF 포스트휴먼 오토피아: 한일 SF 애니메이션으로 살펴보는 ‘우리 안에 온 미래’』, 파주: 문학수첩, 2018년, 41쪽.

9) 외계인과의 접촉을 다룬 대표적인 고전 SF 소설로는 1953년에 발간된 아서 C. 클라크의 『유년기의 끝(Childhood’s End)』이 있다. 『유년기의 끝』은 오버로드라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외계인 문학의 고전 명작(a classic of alien literature)”이라는 평을 받은 작품이다. Dick, Steven J. “The Alien Comes of Age: Clarke to E.T. and Beyond”. Life on Other Worlds: The 20th-Century Extraterrestrial Life Deb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 127-129.

에서는 독특하게도 그 이면에서 다양한 ‘인간’과 ‘외계 생명체’가 ‘인간성’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삼체』 삼부작에서는 이러한 화두를 던짐에 있어 기존 서구권 SF에서 잘 다루지 않고 있었던 중국의 역사적·정치적 문제를 직접적인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삼체』가 현대 중국 사회에서의 인간 존재의 의미와 철학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찰에 시의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도 류츠신의 『삼체』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진행된 『삼체』 연구는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장쓰샹(蔣思翔)은 「《솔라리스》와 《삼체》 시리즈의 포스트휴머니즘 윤리관 비교 연구(《索拉裏斯星》與《三體》系列後人類倫理觀比較研究)」에서 폴란드 작가 스타니스와프 렘(Stanisław Lem)의 작품 『솔라리스(Solaris)』(1961)와 『삼체』를 포스트휴머니즘적 윤리성의 관점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그러나 장쓰샹의 연구는 포스트휴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삼체』의 윤리성 문제를 인간 개념의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기술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 ‘생존’, 그리고 ‘우주적 차원에서의 윤리’로 귀결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류룽룽(劉茸茸)의 「젠더·알레고리·유토피아-류츠신 《삼체》에서의 문화적 계시와 포스트휴먼 상상(性別·寓言·烏托邦——劉慈欣《三體》中的文化啟示與後人類想象)」은 포스트휴머니즘과 젠더의 관점에서 『삼체』를 연구하였다. 류룽룽은 『삼체』에 등장하는 예원제(葉文潔), 청신(程心) 등 여성의 인물형상을 분석하며 ‘포스트휴먼’이 비판하는 계몽주의적 주체 개념과 마찬가지로 『삼체』에서도 이원대립적인 여성상이 아닌 새로운 주체로서의 여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류룽룽의 논문은 젠더 문제와 포스트휴머니즘을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거나 여성 인물들만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국내 학계에서 류츠신의 『삼체』를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학술지 논문 두 편과 학위 논문 한 편이다. 박민호는 「류츠신(劉慈欣)의 《삼체(三體)》를 통해 본 정치적 알레고리와 윤리의 아이러니」에서 『삼체』에 등장하는 문학

적 요소들을 대항해 시대와 식민주의 시대, 20세기 이후의 냉전과 포스트 냉전 시대, ‘리바이어던’ 등을 비유하는 정치적 알레고리로 보았다. 또한 역사적 현실을 담아낸 이러한 작중의 냉혹한 우주세계가 ‘무윤리성’으로 등장하는 것은 평화세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사랑’, ‘용서’, ‘관용’, ‘자비’ 등의 ‘윤리성’은 허황된 것에 불과하다고 분석한다. 박정훈의 「류츠신(劉慈欣) 《삼체(三體)》의 니힐리즘적 세계관 고찰」은 인류 문명에 대한 염증을 니힐리즘으로 분석하였다. 박정훈은 『삼체』의 주제의식이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가치 정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니힐리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삼체』가 제시하는 철학적 사유의 중요성을 짚어낸다. 박정영의 석사학위논문 『류츠신의 과학소설 《삼체》 연구』는 『삼체』 삼부작을 각각도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정영은 류츠신의 과학관을 기반으로 하여 『삼체』의 포스트휴머니즘적 요소와 문명론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삼체』 삼부작을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삼체』를 연구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나 ‘포스트휴먼’을 인간중심주의에 반대되는 ‘탈-인간주의’로 해석하여 인간과 기술을 양분하는 계몽주의적 주체관과 인간 개념을 극복하려 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의 본래 의미가 흐려졌다. 또한 기술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를 낙관과 비관으로 양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여 『삼체』가 다루고 있는 기술과 인간 그리고 외계 문명 간의 복잡한 관계를 단편적으로 담아내는 한계를 보였다.

류츠신의 『삼체』 삼부작에서는 인간이 자연과 대비되는 개념에서의 인간, 물질과 대비되는 개념에서의 정신을 소유한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이 외계 생명의 등장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우주’의 거시적 관점에서 다시금 지구를 터전으로 하는 인간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 세상’의 규칙들이 무너지게 된다. 이는 외부의 시선으로 다시금 인간 세상을 들여다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거시적·외부적 시선과 함께 기술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은 기술 문명 시대의 도래에 대한 명확한 인지는 인류의 도덕성과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삼체』 삼부작의

주체의식은 포스트휴머니즘의 논의들과 맞닿아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기술이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됐을 때 ‘인간’의 의미를 모색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연을 넘어선다고 가정된 기초”를 뛰어넘으려 애쓰는 것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양분되어 있다는 “근거와 현상학적 가정을 수정하고, 기술의 역할을 인간의 자연적 기초로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때 기술은 “비물질적 주체와 물질적 신체를 재통합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기 이해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¹⁰⁾ 이는 ‘인간’ 개념 자체에 대한 반성이자 새로운 이해라 할 수 있다. 해러웨이(Donna Haraway)가 “사이보그 선언문(A Cyborg Manifesto)”에서 주장한 것처럼, “사이보그는 인간/기계, 인간/동물, 물질/비물질 등등의 경계의 일탈이자 경계의 융합”이며, “서구의 동일성 논리에 기초한 동질적 주체가 억압시킨 차이의 복원”이다.¹¹⁾ 그렇기에 “사이보그 정치는 언어를 향한 투쟁으로, 완벽한 소통에 대항하며, 모든 의미를 완벽하게 번역해내는 하나의 코드, 즉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라는 중심 원리에 대항하는 투쟁”¹²⁾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¹³⁾ 이처럼 포스트휴머니즘은 기술이 인간의 미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는 진보적 낙관주의의 트랜스휴머니즘과는 달리, 일원화된 근대적 주체에 대한 반성이자, 기술이 매개된 인간 개념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라 할 수 있다.

10) 이화인문과학원 편,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년, 33쪽.

11) 도나 해러웨이 지음·임옥희 옮김, 「사이보그를 위한 선언문- 1980년대에 있어서 과학,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 『문화과학』 제8호, 1995년.

12) 도나 해러웨이 지음·황희선 옮김, 「사이보그 선언」, 『해러웨이 선언문』, 서울: 책세상, 2019년, 74~75쪽.

13) 여기에서의 사이보그는 신체는 “무수한 축수와 기계 부품, 외계인, 인간, 짐승, 식물의 조각들이 유려하게 얽혀 있는 테크놀로지 시대의 혼성체로 자아와 타자가 상호 감염된 신체이며 다중적 정체성이 증식하는 신체를 상징한다. 이들은 범주와 위계의 구분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몸 자체로 세상과 소통하고 변모하는 기관 없는 신체로 폐쇄적이며 고정적인 기존의 주체 개념을 편파적이고 유동적이고, 변동적인 것으로 대체한다.” 마정미, 『포스트휴먼과 탈근대적 주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년, 43~44쪽.

이러한 포스트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삼체』 삼부작을 들여다보면, 인류의 고유한 영역에 속했던 ‘윤리성’과 ‘도덕성’의 개념이 새로운 궤도를 그려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3. 외계 문명의 존재로 재고하는 인간 문명의 윤리성

『삼체 제1부: 삼체문제』는 인간 문명이 기존의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딛게 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를 그려낸다. 그중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사건은 ‘인간 문명’이 ‘삼체 문명’이라는 미지의 외계 문명과 접촉하는 내용이다. 제1부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은 ‘삼체 문명’에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반응한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유년기의 끝 (Childhood's End)』과 유사한 전개 방식으로, 그간 자기들끼리 대립하였던 인간 문명은 새로운 외계 문명에 대해 반발·굴복·추앙¹⁴⁾이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삼체 제1부: 삼체문제』의 시작은 전술한 다양한 반응 속에서 예원제가 삼체 문명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출발한다. 예원제는 혼란했던 중국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정치적·사회적 압박으로 인하여 인간이라는 존재에 회의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예원제는 물리학 교수인 아버지 예저타이(葉哲泰)의 딸이다. 예저타이는 훌륭한 물리학자였으나,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만다. 그 과정에서 같은 물리학 교수였던 아

14) 지구를 침공한 오버로드들은 시범적으로 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제도를 폐지하고, 스페인의 투우를 중지시키고, 핵무기를 무력화시킨다. 미국·소련과 같은 강대국은 오버로드들의 막강한 과학기술 앞에 굴복하나, 웨인라이트(Wainwright)와 같은 인물들은 오버로드들의 속셈을 의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며 오버로드가 추진하는 세계 정부 구성에 반대한다. 반면 스톰그렌(Stormgren, UN 사무총장)은 오버로드들의 통치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오버로드들에 의한 신탁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아서 C. 클라크 지음, 정영목 옮김, 『유년기의 끝』, 서울: 시공사, 2016년.

내 사오린(紹林)도 홍위병 앞에서 공개적으로 남편의 ‘반동성’을 폭로한다. 이러한 가정의 비극 속에서 예원제는 하방 당하고, 정부의 ‘홍안기지(紅岸基地)’ 프로젝트 투입되어 천문학자로 간신히 살아남게 된다. 이곳에서 예원제는 우연히 살충제 중독을 고발한 책 『침묵의 봄』을 접하고선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레이철 카슨이 쓴 인간의 행위, 즉 살충제 사용은 예원제가 보기에 정당하고 정상적이며 적어도 중립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대자연의 시각에서 보면 이 행위는 문화대혁명과 별 차이가 없었다. 우리 세계에 끼치는 폐해는 마찬가지로 심각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보기에 정상이거나 심지어 정의라고 생각되는 인간의 행위 중 사악한 것이 얼마나 된단 말인가? (중략) 아마도 인간과 악의 관계는 태양과 그 위에 떠 있는 빙산의 관계로, 둘은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빙산이 눈에 잘 띄는 이유는 그저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곳의 실체는 거대한 물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종이 제 머리 못 깎듯 인간 스스로 도덕적 자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인간 이외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¹⁵⁾

예원제는 외계 문명을 향해 중국 사회주의의 위대함을 발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홍안기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계에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사회주의의 위대함이 아닌, 인간 문명에 대한 철저한 실망과 구원의 손길을 요하는 것이었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원제의 동기

15) “蕾切爾·卡遜所描寫的人類行爲——使用殺蟲劑，在文潔看來只是一項正當和正常的、至少是中性的行爲；而本書讓她看到，從整個大自然的角度的看，這個行爲與“文化大革命”是沒有區別的，對我們的世界產生的損害同樣嚴重。那麼，還有多少在自己看來是正常甚至正義的人類行爲是邪惡的呢？（中略）也許，人類和邪惡的關係，就是大洋與漂浮於其上的冰山的關係，它們其實是同一種物質組成的巨大水體，冰山之所以被醒目地認出來，只是由於其形態不同而已，而它實質上只不過是這整個巨大水體中極小的一部分……人類真正的道德自覺是不可能的，就像他們不可能拔著自己的頭髮離開大地。要做到這一點，只有借助於人類之外的力量。”

류츠신 지음, 이현아 옮김, 『삼체 제1부: 삼체문제』, 서울: 자음과모음, 2020년, 113~114쪽. 劉慈欣, 《三體》, 重慶: 重慶出版社, 2008년, 70頁.

가 외계 문명에 대한 낙관주의보다는 인류 문명에 대한 비관주의가 우선하였다는 점이다.

결말부에 이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라는 ‘인간성’을 표출한 것은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는 삼체 문명의 최초 접촉자, 1379호 감청원이었다. 그는 지구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삼체 문명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상하였고, (이는 필시 지구 문명의 파멸로 귀결될 것이었다) 본인의 보전보단 지구의 안위를 우려하여 다시는 삼체 세상에 접촉하지 않도록 예원제에게 경고문을 발송하였다. 1379호 감청원은 “개인과 사회를 정신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어 이 세계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데 불리해지”게 만드는 “공포, 슬픔, 행복, 아름다움 등 모든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다. “삼체 세계에서 필요한 정신은 냉정함과 무감각”¹⁶⁾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청원 1379호는 삼체 문명에 염증을 느끼고 “정신의 획일화와 메마름”¹⁷⁾을 견딜 수 없다고 토로한다. 여기에서 ‘인간성’에 대한 아이러니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인류 문명의 일원인 예원제는 인간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인간성’을 부인하고 비인간, 즉 외계 문명에 희망을 건다. 반대로 외계 문명인 삼체 세계에서는 도리어 정신을 허약하게 만드는 ‘감정’을 갈구한다. 이 지점에서 소설은 인간/외계, 이성/감정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당신은 왜 그들이 인류 사회를 개조하고 완전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라는 심문관의 질문에 예원제는 “그들이 행성 사이를 뛰어넘어 우리 세계에 올 수 있다면 그들의 과학은 이미 상당한 단계로 발전했을 것이고 과학이 그토록 발전한 사회라면 더 높은 문명과 도덕 수준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에 대한 심문관의 대답은 “그 결론이

16) “以上這些情緒，還有其他的所有情緒，像恐懼、悲傷、幸福、美感等等，都是三體文明所極力避免和消除的，應為它們會導致個體和社會在精神上的脆弱，不利於在這個世界惡劣的環境中生存。三體世界所需要的精神，就是冷靜和麻木。” 류즈신, 위의 책, 397쪽. 劉慈欣, 同上書, 267頁.

17) “我最無法忍受的是精神生活的單一和枯竭。” 류즈신, 위의 책, 399쪽. 劉慈欣, 同上書, 268頁.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까?”이다.¹⁸⁾ 이 대목에서 소설은 과학/비과학, 인간/비인간, 기술 발달/기술 낙후, 높은 윤리의식/타락한 윤리의식의 이분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삼체 외계 문명으로 대변되는 신기술 기반의 세상에서 기존의 관념들은 모두 의미가 없어졌음을 다시금 강조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설의 초점은 ‘윤리성’의 문제에 맞춰진다.

오늘날 마법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미래에 현실로 구현되었을 때에, 도덕 준칙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같은 맥락에서 류츠신은 “우주에는 공동의 도덕 준칙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도덕감 제로인 우주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100퍼센트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전제로 할 때 “도덕이 있는 인류 문명은 이 우주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삼체』 삼부작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힌다.¹⁹⁾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기술의 발전과 윤리성 문제에 대한 고찰은 『삼체』 삼부작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윤리성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소재로 드러난다.

첫 번째는 ‘멘탈 스탬프’라는 기술이 야기하는 윤리성 문제다. 멘탈 스탬프는 『삼체 제2부: 암흑의 숲』에 등장하는 인간 사고를 바꾸는 기술이다. 이는 대뇌의 신경망의 구조 중 인간이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응용한 것이다. 소설에서는 인간의 대뇌가 사고하는 과정을 기계, 즉 컴퓨터에 비유한다. 대뇌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특정 정보가 입력되면 나름의 프로세스를 거쳐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다. 이에 착안하여 대뇌에 있는 특정 신경망을 기술적으로 처리하여 대뇌에 특정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사고를 거치지 않고 그 정보를 사실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 기술을 소설에서는 ‘멘탈 스

18) “審問者：那你爲什麼對其抱有那樣的期望，認爲它們能夠改造和完善人類社會呢？葉文潔：如果他們能夠跨越星際來到我們的世界，說明他們的科學已經發展到相當的高度，一個科學如此昌明的社會，必然擁有更高的文明和道德水準。審問者：你認爲這個結論，本身科學嗎？” 류츠신, 위의 책, 388쪽. 劉慈欣, 同上書, 260~261頁.

19) “如果存在外星文明，那麼宇宙中有共同的道德準則嗎？（中略）我認爲零道德的宇宙文明完全可能存在，有道德的人類文明如何在這樣一個宇宙中生存？這就是我寫“地球往事”的初衷。” 류츠신, 위의 책, 444~446쪽. 劉慈欣, 同上書, 300~301頁.

템프'라고 명명했다. 즉, 인간의 사고 조작이라는 마법과도 같은 일이 과학 기술로 구현된 것이다.

소설에서는 멘탈 스탬프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시킨다. 삼체 함대가 지구를 함락시키기 위해 날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간은 깊은 절망에 빠진다. 삼체 문명의 기술력을 미루어 봤을 때,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삼체 문명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란 신념이었다. 그러나 이는 이성적인 사고로는 가질 수 없는 감정이기에 멘탈 스탬프로 '정치사상 공작'을 진행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소설은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그건 기술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리하듯 생각을 바꿔 놓는 겁니다. 그렇게 수리된 인간은 인간일까요, 자동 기계일까요?”²⁰⁾

이 지점에서 소설이 제기한 질문은 철학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멘탈 스탬프는 비물질적 세계에 존재하던 기술이 신체 내부로 침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간 종 바깥에서 비-인간으로 다루어졌던 다른 생명체들과 기계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성찰”을 제기하며, 이 “타자들과 공존-공생-공진화(共進化)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성의 발명을 촉구”²¹⁾한다. ‘인간의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와 능력’과 ‘전쟁에서의 승리’ 사이의 충돌. 그리고 멘탈 스탬프를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멘탈 스탬프 기술을 적용받았을 때의 윤리적 책임. 이 모두는 기계와 인간의 공존과 공생을 전제로 한 새로운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위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우주 세계에서의 윤리적 기준의 문제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삼체』 삼부작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삼체 제2부: 암흑의 숲』에서 뤼지(羅輯)는 “과학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정의가 필요하다”며, “선의는 다른 문명을 자발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것이고 악의는 그 반

20) “技術已經做到了能像修改計算機程序那樣修改思想，這樣被修改後的人，是算人呢，還是自動機器?” 류즈신 지음, 허유영 옮김, 『삼체 제2부: 암흑의 숲』, 서울: 자음과모음, 2020년, 380쪽. 劉慈欣 《三體II:黑暗森林》, 重慶:重慶出版社, 2008年, 244~245頁.

21) 김재희,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철학연구』 106집, 2014년, 216쪽.

대”²²⁾라고 말한다.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체』 삼부작에서 선의에서 비롯된 인간의 많은 판단은 악의로 귀결된다. 그 예로 『삼체 제2부: 암흑의 숲』에서 장베이하이(章北海)는 삼체의 침공을 앞두고 우주선에 인류 문명의 모든 정보를 싣고 우주의 심연을 향해 나아간다. 당초 장베이하이가 이끄는 우주 함대는 총 다섯 척이었다. 그러나 부품과 식량의 부족으로 장베이하이는 다섯 척의 함대 중 네 척을 파괴시킨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베이하이는 우주 환경에서는 인간의 개념이 사라지며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윤리도 형성되고 있”²³⁾다고 생각한다. 우주 세계에서 장베이하이에게 남은 윤리란 ‘인간 문명의 씨앗을 보존하는 일’인 것이다. 남은 한 척의 함대는 나머지 네 척에 타고 있던 선원들의 시신을 먹으며 생존한다. 이 역시 제3부 『사신의 영생』에서 윤리적 문제로 언급된다.

또 다른 예로 공멸의 문제가 있다. 소설에서 삼체인은 자신의 생각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소통하는 생명체로 등장하게 된다. 삼체 세계에서는 모든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생각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삼체인은 인간의 ‘지략’과 ‘음모’의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인류는 ‘면벽자’를 선발한다. 실력을 갖춘 인간을 선발하여 머릿속으로 삼체 문명에 대항할 수 있는 지략을 짜 지구의 멸망을 막는다는 전지구적 플랜이었다. 그러나 면벽자로 선발된 자들은 삼체 문명을 과멸시키기 위해 인류가 공멸하는 전략을 내놓는다. 이는 현대 사회의 윤리를 포기한 살인 행위이다. 그러나 후에 뒤지는 ‘공멸’ 전략을 활용하여 ‘위협 게임학’을 적용, 삼체 문명과 인류 문명이 서로를 침공하지 못하는 ‘평형상태’를 이루게 된다.

이는 인간과 기계, 인간과 외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인간 주체와 외부 세계의 경계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의 구성물로 거듭

22) “下面要定義兩個概念：文明間的善意和惡意。善和惡這類字眼放到科學中是不嚴謹的，所以需要對它們的含義加以限制：善意就是指不主動攻擊和消滅其他文明，惡意則相反。” 류츠신, 앞의 책, 672쪽. 劉慈欣, 同上書, 443頁.

23) “新的文明在誕生，新的道德也在形成。” 류츠신, 위의 책, 638쪽. 劉慈欣, 同上書, 420頁.

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²⁴⁾ 인간과 비인간, 생명과 비생명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기에 인간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윤리적 기준도 흔들리게 된다. 제3부로 들어가면 인간 종은 우주의 수많은 종들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되며, 이는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를 해체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관점과 방법(생물학적·정보과학적·인지과학적)의 과학기술 사이에 밀접한 다중접속력을 가진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윤리”를 추구한다.²⁵⁾

4. 기술 중심주의 문명에서의 인간성 문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문명과 문화에 기술이 개입했을 때, ‘인간’과 ‘인간성’은 새롭게 정의된다. 『삼체』 삼부작은 ‘기술적 인간’의 존재와 ‘인간성’의 정의라는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인간’ 개념과 ‘인간성’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술적 인간’이란 “기술(혹은 기술결정물)을 이용해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인간 몸의 물리적 기반을 보완·극복·모방한 ‘인간적인 비인간/비인간적인 인간’을 통칭”한다.²⁶⁾ 기존의 SF에서 이러한 기술적 인간은 인간이 기술과 결합된 사이보그 인간의 형태로 제시되곤 했다. 앞서 언급한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에서도 안드로이드나 레플리컨트의 ‘인간적 행위’를 그리며 인간에 대한 정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의 『이백 살을 맞은 사나이(The Bicentennial Man)』에서도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는 것을 주 소재로 하였다. 『삼체』 삼부작에서도 유사한 테마가 보인다. 제3부 『사신의 영생』에서 윈텐밍(雲天明)의 뇌를 우주로 보내는 사건에 이에 해당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자

24) 최용성·이왕주, 「포스트휴먼시대의 다중접속 이타성의 윤리와 예술」, 『윤리연구』 115호, 2017년, 329쪽.

25) 최용성·이왕주, 위의 논문, 73쪽.

26) 안승범, 앞의 책, 44~45쪽.

신의 생각을 숨길 수 있지만 삼체인은 생각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를 이용하여 인간이 삼체 세계에 숨어든다면, 그들의 생각과 전략을 알아내 지구에게 그 정보를 보낼 수 있다. 문제는 삼체 문명과 지구의 거리가 너무 멀어 지구에서 인간을 삼체 문명에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이었다. 인간을 삼체 문명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무게를 줄여야 했다. 이 때문에 인간의 뇌만 삼체 문명으로 보내게 된다. 그 전체는 뇌에 이미 인간 신체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삼체 문명이 뇌만 가지고도 인간의 신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로 다시 부활한 인간은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점은 지자(智者, 삼체인이 지구와 소통하기 위해 보낸 양성자) 역시 ‘인간’의 외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자는 인간과 유사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자는 어떠한 ‘인간’인가.

이는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제시하는 ‘포스트휴먼’의 정의로 분석 가능하다. 트랜스휴머니즘에서의 ‘포스트휴먼’은 “‘진보(progress)’에 대한 계몽주의적 기획을 수용”한 결과다. 즉 “더 건강하고 더 현명하면서 주로 불멸성, 아름다움, 도덕적 순결성 등과 같은 욕구를 실현할 더 많은 힘을 가진 독립적인 ‘자아’”라 할 수 있다.²⁷⁾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제시하는 ‘포스트휴먼’은 기술력이 극도로 발전할 때, 인간은 보다 완전한 ‘초인’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포스트휴먼의 육체가 “감각과 지각의 총체로서의 육체”가 지닌 의미가 해체되었다고 보고, “과학기술적으로 경험되고 증명되는 과학기술 대상으로서의 육체”²⁸⁾로 본다. 이는 종합적이며 통합적인 존재론적 인간 개념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공진화하는 인간 개념으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체』의 윈텐밍과 지자가 상징하는 인간 형상은 극도로 발전된 기술이 탑재된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과학기술과 인간이 공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의 인간에 『삼

27) 토머스 필백, 앞의 책, 27쪽.

28) 김웅준, 「포스트휴먼 조건 또는 인간의 조건」, 『인문과학』, 제67집, 2017년, 199쪽.

체』는 ‘인간성’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을 대두시킨다.

인간성으로 대변되는 것은 인간 고유의 감정이다. 삼체인에게는 감정이 없다. 그들은 공포, 슬픔, 행복, 아름다움 등의 감정은 유약한 것이며 냉혹한 우주 세계에서의 생존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한다. 이러한 묘사는 마치 류츠신이 기술중심주의를 긍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삼체』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사신의 영생』에서 청신은 ‘위협 게임학’을 통한 삼체 문명과 인류 문명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검잡이’가 될 것을 제안받는다. 망설이던 사이, 한 어머니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청신에게 안겨주며 청신을 ‘성모마리아’라 칭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켜줄 것을 부탁한다. 이 순간 느낀 모성의 감정으로 청신은 검잡이가 된다.

아기 엄마의 말과 품에 있는 따뜻하고 보드라운 아기가 청신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그녀가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 품고 있는 감정이 모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녀가 서기 시대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감정이 잠재의식 속에서 깨어나며 새로운 세계 사람들이 마치 품안의 아기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상처받는 걸 볼 수 없었다. 예전에는 이것을 책임감으로 오해했지만 모성과 책임감은 다르다. 모성은 본능이므로 벗어날 수 없다.²⁹⁾

그 후 청신에게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청신은 두 번 다 ‘인류를 구하기 위한’ 선택을 내리고, 그 결정의 근거는 ‘인간성’이었다. 그러나 그 두 번의 결정은 모두 더 많은 인류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 이 지점에서 작가는 독자들로 하여금 ‘인간성’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 ‘인간성’에 반

29) “年輕母親的話和懷中溫暖柔軟的嬰兒讓程心突然明白了一件事，她看清了自己對這個新世界的感情的實質：母性。是她在公元世紀從未體會過的母性，在她的潛意識中，新世界中所有的人都是自己的孩子，她不可能看著他們受到傷害。以前，她把這誤認為是責任，但母性和責任不一樣，前者是本能，無法擺脫。” 류츠신 지음, 허유영 옮김, 『삼체 제3부: 사신의 영생』, 서울: 자음과모음, 2020년, 176~177쪽. 劉慈欣 《三體Ⅲ:死神永生》, 重慶:重慶出版社, 2010年, 111頁.

하는 결과를 낳을 때, ‘인간’을 규정짓는 ‘인간성’의 개념은 무엇일지 다시금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한다. “인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인류에 대한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청신의 사유³⁰⁾는 우주세계와 기술문명 속에서도 유효한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윤리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야가 우주세계로 확장되었을 때 윤리성과 인간성이 인간 고유의 문체가 아니게 된다는 점이다. 『스타워즈(Star Wars)』나 『스타트렉(Star Trek)』과 같은 스페이스 오페라에서는 이미 외계 문명과 인간 문명이 서로 뒤섞이며 융합한 모습을 묘사했다. 현재 지구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찾아볼 수 있듯, 우주적 관점에서는 생명체의 다양성을 찾아보는 것처럼 말이다. 『삼체』에서 외계 문명과 인간 문명은 서로를 학습한다. 인간 문명은 삼체 문명의 발달된 기술을 학습한다면, 삼체 문명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던 ‘생각을 숨기고 계획을 짜는’ 전략을 배운다. 또 인간은 삼체 문명의 냉혹한 이성을 배워 양심과 도덕은 ‘사회 강박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삼체 문명은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꽃과도 같은 인간 감정의 가치를 동경하기도 한다. 외계 문명과 인간 문명의 이러한 시도는 모두 한 가지 원칙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바로 “생존은 문명의 첫 번째 필요조건”이라는 점이다. 이는 외계 문명과 인간 문명 모두 생존을 목표로 할 때, ‘인간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이러한 물음은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사이보그 세계는 사람들이 동물 및 기계와 맺는 친족관계를 비롯해 영원히 부분적인 정체성과 모순적 입장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데서 경험하는 사회적·신체적 현실과 결부될 수 있다. 이 두 관점을 동시에

30) “인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인류에 대한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에서 시작돼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자책하는 게 도리어 황당하죠.” “人類不是一個抽象的概念，對人類的愛是對一個一個人的愛開始的，首先負起對你愛的人的責任，這沒什麼錯，為這個自責才荒唐呢！” 류즈신, 위의 책, 107쪽. 번역은 필자가 일부 수정. 劉慈欣, 同上書, 63頁.

보는 것이 정치 투쟁이다. 각각이 다른 시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지배와 가능성을 드러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단일한 시각은 이중적인 시각이나 머리가 여럿 달린 괴물의 시각보다 나쁜 환상을 만들어낸다. 사이보그 연합체는 기괴하고 위법적이다.³¹⁾

해러웨이 논의의 초점은 사이보그가 ‘단일한 시각’ 혹은 ‘이중적인 시각’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즉, “본질적” 통일성(essential unity)을 지닌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은 그 자체로 역사적·사회적 구성물이며 복잡적이고 모순적인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이는 ‘여성’을 단순한 통일체로 보는 단일한 시각, 혹은 남성의 대척점에 서 있는 ‘남성이 아닌’ 존재로서의 여성으로 인지하는 이중적 시각을 극복하게 해 준다.

마찬가지로, 『삼체』 삼부작에서도 삼체 문명의 존재는 ‘윤리성’ 혹은 ‘도덕성’이라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준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윤리성’과 ‘인간성’은 모두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것이다. 이를 우주적 관점에서 확장했을 때 ‘윤리성’과 ‘인간성’은 인간을 넘어선 새로운 영역으로 접어들게 된다. 높은 수준의 기술은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인간의 생존과 인간 문명의 생존이 충돌할 때, 어떠한 선택이 윤리적인가? 이러한 윤리성이 새로운 궤도를 그리게 되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멘털 스탬프로 인간의 사고를 조작하면, 그 인간을 ‘인간’으로 부를 수 있는가? 만약 인간이 아니라면 그 존재는 무엇일까? 인간성의 본질이 ‘공포, 슬픔, 행복, 아름다움’ 등의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는 것이라면, 외계 생명이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 그 외계 생명은 ‘인간성’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반대로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인간성’을 기반으로 한 선택이 ‘윤리성’을 확보하지 못할 때, 그 ‘인간성’은 무엇으로 정의내릴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질문들은 “인간이 더 이상 문명의 중심이 아닐 때, 기술이 문명의 중심이 되었을 때,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에

31) 도나 해러웨이, 앞의 책, 29쪽.

초점이 맞춰진다. 즉, 우주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을 기반으로 한 단일한 관점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인간/외계의 이중적 관점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우주 속에서 인간은 미물(微物)에 불과하며, 이러한 점을 인식하게 되면 인류는 그동안 음지에 머물러 있던 인간 문명의 복잡함과 모순성을 직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나오며

헤어브레히터(Hebrechter)는 SF야말로 명실상부 포스트휴먼의 장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SF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 과학과 기술에 의한 인간 규정이며, 문제는 우리의 ‘기술문화적 조건’이기 때문이다.”³²⁾ 이는 인간과 기술을 바라보는 포스트휴머니즘적 관점에서조차 여실히 드러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기술과 인간을 이원화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기술이 인간을 구성하는 근본원리의 일부여야 한다”³³⁾고 본다. 물질적 세계와 비물질적 주체인 자아를 구분하는 계몽주의적 관점의 극복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다른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을 통해 신체를 통제가능한 정신이라는 존재론적 틀에 기반 한 윤리성과 인간 존엄성의 틀은 무너진다. “자기 자신 안에서의 불완전성과 불일치를 인식하고, 객관적인 관찰에 있어서 지적인 엄격함과 헌신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이질적 관점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³⁴⁾ 포스트휴먼은 기술이 매개된 ‘인간의 새로운 구성(constitution)’을 제시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이 제안하는 새로운 구성체로서의

32) 슈테판 헤어브레히터 지음, 김연순·김응준 옮김, 『포스트휴머니즘: 인간 이후의 인간에 관한 문화철학적 담론』,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년, 167쪽.

33) 토머스 필백, 「포스트휴먼 자아: 혼합체로서의 도전」, 이화인문과학원 편,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3년, 29쪽.

34) 이혜영·안지현·유수연·김예원 지음,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8년, 110쪽.

인간은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계속적으로 생성 중인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은 SF에서 다루는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미래를 낙관/비관 혹은 긍정/부정의 이원화된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며, 동시에 정의와 윤리, 인간 존엄성을 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삼체』는 다양한 SF 장르 중에서도 하드 SF에 속한다. 류츠신은 『삼체』 삼부작 중 제1부 『삼체문제』의 「작가의 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야, 시리즈 이름을 ‘지구의 과거’라고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소설이 다른 환상문학과 다른 점은 그것이 진실과 가늘게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과학소설이 현대의 신화이지 동화가 아닌 것이다. (고대 신화는 당시 동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진실이었다.) 잘 쓴 과학소설이란 제일 변화무쌍하고 제일 정신 나간 상상을 뉴스 보도처럼 진실하게 쓴 것이라고 나는 늘 생각했다. 과거의 기억은 언제나 진실하다. 나는 역사가가 과거를 진실하게 기록하는 것처럼 소설을 쓰고 싶다. 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지만.³⁵⁾

특히 그는 SF 세계 창작의 어려움을 언급한다. 장편 SF 경우 ‘소설적 생동감’, ‘과학적 지식’, ‘논문적인 진지함’을 갖추지 않으면 ‘속 빈 강정’이 되기 쉽다고 지적한다.³⁶⁾ 이러한 측면에서 류츠신의 『삼체』는 독자들을 만족시킨다. 특히 『삼체』의 문학적 상상력이 드넓은 우주를 향해 무한히 확장되어 나가면서 철학적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SF소설이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포스트휴머니즘의 담론을 이어나가고 있다. 류츠신 소설의 근

35) “哦，這個設想中的系列叫“地球往事”，沒有太多的意思，科幻與其他科想文學的區別就在於它與真實還牽著一根細線，這就使它成爲現代神話而不是童話（古代神話在當時的讀者心中是真實的）。所以我一直認爲，好看的科幻小說應該是把最空靈最瘋狂的想象寫得像新聞報道一般真實。往事的回憶總是真實的，自己希望把小說寫得像是歷史學家對過去的真實敘，但能不能做到，就是另一回事了。” 류츠신, 『삼체 제1부: 삼체문제』, 447쪽. 劉慈欣, 《三體》, 302頁.

36) 류츠신, 위의 책, 447쪽.

간은 ‘인간’이고, 그 ‘인간’이 영유하고 있는 현실세계다. 포스트휴머니즘적 관점은 류츠신 소설이 제기하는 기술과 인간의 관계, 기술이 매개되었을 때의 윤리성 문제, 그리고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에 보다 깊은 사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參考文獻

- 劉慈欣, 《三體》, 重慶: 重慶出版社, 2008年.
- 劉慈欣, 《三體II: 黑暗森林》, 重慶: 重慶出版社, 2008年.
- 劉慈欣, 《三體III: 死神永生》, 重慶: 重慶出版社, 2010年.
- 류츠신 지음, 이현아 옮김, 『삼체 제1부: 삼체문제』, 서울: 자음과모음, 2020년.
- 류츠신 지음, 허유영 옮김, 『삼체 제2부: 암흑의 숲』, 서울: 자음과모음, 2020년.
- 류츠신 지음, 허유영 옮김, 『삼체 제3부: 사신의 영생』, 서울: 자음과모음, 2020년.
- 고장원, 『중국과 일본에서 SF소설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 중국과 일본의 과학 소설 역사』, 부천: 부크크, 2017년.
- 도나 해러웨이 지음·황희선 옮김, 『해러웨이 선언문』, 서울: 책세상, 2019년.
- 마정미, 『포스트휴먼과 탈근대적 주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년.
- 아서 C. 클라크 지음, 정영목 옮김, 『유년기의 끝』, 서울: 시공사, 2016년.
- 필립 K. 딕 지음, 박중서 옮김,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서울: 플라북스, 2013년.
- 슈테판 헤어브레히터 지음, 김연순·김응준 옮김, 『포스트휴머니즘: 인간 이후의 인간에 관한 문화철학적 담론』,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년.
- 안승범, 『SF, 포스트휴먼, 오토피아: 한일 SF 애니메이션으로 살펴보는 ‘우리 안에 온 미래’』, 과주: 문학수첩, 2018년.
- 이화인문과학원 편,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3년.
- 이혜영·안지현·유수연·김예원 지음,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8년.
- 박정영, 『류츠신의 과학소설 《삼체》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년.
- 김응준, 「포스트휴먼 조건 또는 인간의 조건」, 『인문과학』, 제67집, 2017년.

- 김재희,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철학연구』 106집, 2014년.
- 다너 해러웨이 지음·임옥희 옮김, 「사이보그를 위한 선언문- 1980년대에 있어서 과학,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 『문화과학』 제8호, 1995년.
- 박민호, 「류츠신(劉慈欣)의 《삼체(三體)》를 통해 본 정치적 알레고리와 윤리의 아이러니」, 『중국문학연구』 제72집, 2018년.
- 박정훈, 「류츠신(劉慈欣) 《삼체(三體)》의 니힐리즘적 세계관 고찰」, 『중국연구』 제86집, 2021년.
- 최용성·이왕주, 「포스트휴먼시대의 다중접속 이타성의 윤리와 예술」, 『윤리연구』 115호, 2017년.
- 嚴鋒, 〈創世與滅寂—劉慈欣的宇宙詩學〉, 南方文壇, 2011年.
- 蔣思翔, 〈《索拉裏斯星》與《三體》系列後人類倫理觀比較研究〉, 安康學院學報, 2020年.
- 劉茸茸, 〈性別·寓言·烏托邦——劉慈欣《三體》中的文化啟示與後人類想象〉, 小說評論, 2021年.
- Dick, Steven J. "The Alien Comes of Age: Clarke to E.T. and Beyond". Life on Other Worlds: The 20th-Century Extraterrestrial Life Deb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Galvan, Jill. "Entering the Posthuman Collective in Philip K. Dicks'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Science Fiction Studies, 24(3), 1997.
- "[IF] 첫 네 수만 167억가지... '피'를 부린 알파고" 『조선비즈』, 2016년 4월 2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1/2016040101422.html
- Liu Cixin, "The Robot Revolution Will Be the Quietest One", The New York Times, Dec. 7, 2016.
<https://www.nytimes.com/2016/12/07/opinion/the-robot-revolution-will-be-the-quietest-one.html>

“劉慈欣憑《三體2：黑暗森林》再獲日本星雲獎”，『人民資訊』，2021年7月22日，
<https://baijiahao.baidu.com/s?id=1705990857275159502&wfr=spider&for=pc>

Abstract

Posthumanistic Literature Imagination in Chinese Science Fiction

- Focusing on Liu Cixin's *Three Body*

Son, Ju Yeon

This paper analyzes the Three Body trilogy by Liu Cixin, a representative science fiction novel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posthumanism. This study particular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human, alien, and human civilization depicted in the sci-fi universe of the Three Body trilogy that has been embodied by Liu Cixin's literary imagination, and examines the consequent philosophical and literary question on "What is human and human civilization?"

In the Three Body trilogy, alien civilization encounter acts as expansion to the outside of human civilization. Human civilization expands its insight from "human vs human" to "human vs unknown alien-life." The encounter with alien civilization raises questions about ethical issues and the concept of humanity that arise with advancement of technology. The technology advancement presented in the Three Body trilogy is associated with many ethical issues. Mental stamps, cannibalism under extreme conditions, and the strategy of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of both alien and human civilization raise discussions about the absolute standard of human and ethicality as moral beings. In addition, the technology advancement such as the separation of the brain and body symbolized by the human spirit, and the appearance of alien life embodied in human form, makes it necessary to reconsider the concepts of "human" and "humanity." This leads to seeking answers to the question of 'what factors make humans human'.

The future world depicted in the Three Body trilogy offers a retrospect on human civilization, which has already entered an era that emphasizes technology. In this process, readers are able to reconsider the philosophical meaning of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hope for the future, and the progress of technology.

Key words : Liu Cixin, *Three Body*, *Three Body Problem*, Chinese SF novels, Posthumanism, Posthuman

투 고 일 : 2022. 7. 10. / 심 사 일 : 2022. 7. 15.~ 2022. 8. 15. / 게재확정일 : 2022. 8. 20.